

노인학대의 발생을 예측하는 변인에 관한 연구: 노인의 특성과 가족환경을 중심으로

김 지 영*

김 기 범**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두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첫 번째는 노인들의 특성이고 두 번째는 노인을 둘러싼 가족 환경적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노인의 특성 변인으로는 노인의 건강 상태, 노인의 월소득, 노인의 자녀에 대한 도움행동, 노인의 자녀와의 갈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측정하였고, 노인을 둘러싼 가족 환경적 특성으로 가족간의 응집력, 자녀들간의 재산다툼을 측정하였다. 노인 남성 150명과 노인 여성 15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가족간의 응집력과 재산다툼이 노인학대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강한 노인들에게 일어나는 노인학대는 노인 개인의 특성보다는 가족의 다양한 역학관계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심리학박사

**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심리학박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2020년이 되면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중이 15.1%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2003).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례해 노인학대의 발생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같은 선진 국가에서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으므로 노인들이 자식으로부터 경제적, 정서적으로 독립하여 홀로 생활을 영위하거나,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노인학대 연구도 시설에서의 학대, 이웃으로부터의 학대, 배우자에 의한 학대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학대가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국내의 노인학대 연구는 대부분 가정에서 자식에 의한 노인학대에 초점이 맞추어졌는데, 그 이유는 한국사회에서 노인부양의 책임을 전적으로 가족, 특히 자녀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한국사회에서 노인학대 유형 중에 가장 빈번하다고 할 수 있는 성인 자녀에 의한 노인학대에 관해 연구하였다.

장기간 와병중인 노인들에 대한 신체적 폭력과 유기, 방임 같은 극단적인 노인학대의 원인에 관해서는 가족이나 사회의 정서적, 경제적 지원의 부족, 부양자들의 스트레스 등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되어왔다. 그러나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학대의 원인에는 부양자 스트레스나 부양자의 성격적인 특성과 같은 단선적인 원인으로만 귀결할 수 없는 보다 다양한 사회심리학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와병 중에 있지 않은 노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고, 자녀들이 노인을 위해 투입하는 시간이나 노력, 경제적 비용이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지만 노인으로 인한 가족간의 갈등이나 학대가 현저히 적다고는 할 수 없다. 즉 일반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노인들에게 일어나는 학대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노인의 자녀에 대한 의존성, 그로 인한 부양 부담과 같은 직접적인 원인 및 노인을 둘러싼 가족 환경, 자녀들 간의 관계 등과 같이 간접적인 원인도 같이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를 거동이 자유로운 노인 부모로 한정하여, 노인의 건강, 경제적 수준, 자녀에 대한 도움행동, 노인의 갈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노인을 둘러싼 가족간의 응집력, 자녀들 간의 재정적 갈등 중에서 성인 자녀에 의한 노인학대의 발생 유무를 예측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I. 노인학대와 선행연구들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APA)는 노인학대를 ‘노인에게 신체적, 심리적, 혹은 감정적 고통, 해를 유발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경제적 착취나 보호제공자의 의도적, 비의도적 방임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APA, 2002). 그러나 미국의 학자들은 연구 초기부터 노인학대의 표면적 현상 뿐 아니라 노인의 인권과 복지라는 노인학대의 본질적인 문제에 천착했다. 예를 들어, Hudson(1991)은 학문적으로 보다 포괄적이며 세세하게 노인학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노인학대란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간에 어떤 행위를 가하거나(학대) 혹은 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방임)으로, 육체적, 심리적(정서적), 재정적 학대나 방임이 하나 혹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이 나타나게 되어 그 결과 노인들이 불필요한 고통이나 상처, 인권을 침해받게 되고,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이다(Hudson, 1991).

한국의 노인학대 상담센터에서도 노인학대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유형별로 정의하고 있는데, 선진 각국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서 내리고 있는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는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로 정의되며, 언어-정서적 학대(Verbal-Emotional Abuse)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로 정의한다. 성적학대(Sexual Abuse)는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로 규정된다.

또한 재정적 학대(Financial Abuse/ Exploitation)는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로 규정되고 있으며, 방임(Neglect)은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로 정의된다. 유기(Abandonment)는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를 말하며, 마지막으로 자기방임(Self-Neglect)은 노인 스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노인학대는 사회학, 범죄학, 노년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되어왔다. 노인에 대한 신체적이고 성적인 학대의 경우, 가해자들의 정신적, 정서적 장애가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Wiehe, 1998). 그러나 Anetzberger(2000)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반박하면서 학대피해자들의 다수가 건강하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노인들이라는 연구결과를 보고했으며 일반인들의 믿음과 달리 노인들이 부양자들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재정적,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Anetzberger, 2000).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들의 학대는 노인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하는 동기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가해자들에 대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노인학대에 관해 잘못된 ‘신화(myth)’를 심어줄 수 있으며, 대처와 개입에 있어 적절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Fulmer와 Anetzberger(1995)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 문제를 가족의 역동성 차원에서 다루는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즉 노인학대를 가해자의 특성과 같은 일방향적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관계,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쌍방향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이 보다 문제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상적인 인간관계는 물질적, 정서적 측면에서 호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가족안에서 부모-자녀간의 호혜성은 자녀가 성장할 때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지만, 자녀가 자라 성인이 되고, 부모가 늙으면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다. 특히 자녀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에는 물론이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녀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므로, 자녀들은 일방적으로 부모로부터 받는 것에 익숙해진다. 그런 자녀들은 부모가 늙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조그마한 의존성에도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즉 생애 주기가 변함에 따라 양 세대는 부모-자녀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지만 부모와 자식 모두 그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그리 용이하지 않으므로 서로에 대한 불만이 쌓이게 되고, 급기야 노인학대로까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노

인들의 자녀에 대한 의존성 정도가 학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월소득, 자녀에 대한 도움행동을 측정하였다. 즉 노부모가 건강하고, 월소득이 높으며, 자녀들을 위해 가사분담 및 금전적, 정서적 지지를 많이 할수록 학대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지만, 그와 반대로 노부모가 건강하지 못하고, 월소득이 없고, 자녀들을 위해 도움행동을 충분히 하지 않는 경우 학대의 발생율이 높을 것이라 본다.

서구의 노인들은 개인주의적이고 유년기부터 독립심이 내면화되어 자녀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횡적 관계라면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가족 내에서 종적인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하고 있으므로 친자 간에 가치관이나 역할기대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쉽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들은 자녀들과 동거를 하면서도 정신적으로는 별거를 하는 상황이 자주 나타난다(황진수, 1994). 갈등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불가피한 것이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장유유서와 노인공경의 전통이 살아있는 한국문화에서 세대간의 갈등이 생길 때, 노인 부모들은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거나 합리적인 대화를 시도하기 보다는 갈등을 회피하거나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강하다(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2000). 갈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란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자녀와 합리적으로 대화하려고 시도하거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인들의 대응은 자녀와 노인간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노인학대를 억제하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Cicirelli(1983)는 현재 성인자녀의 부모에 대한 효도, 부모의 의존성, 부모와의 갈등 등의 변수를 측정하여 노부모에 대한 현재의 지원행동과 미래의 지원행동을 인과적 경로 모델로 검증하였다. 이 모델에 따르면 노부모와 성인자녀가 현재 긍정적인 관계에 있을수록, 성인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애착과 효도가 강할수록, 미래에도 노부모를 더욱 자주 찾아뵙거나 대화를 나눌 가능성이 높았다. 즉 성인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는 현재의 행동은 과거로부터 축적된 부모-자녀간 유대감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부모가 늙고 병들어 부양부담이 높은 경우에도 부모-자녀간의 애정은 이러한 부담감을 희석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고, 반대로 부모가 건강하고 경제적인 자립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한 애정

이 적은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 원조를 소홀히 하거나 학대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다(한동희, 1996).

결국, 이런 연구결과들이 가리키는 것은 부모-자녀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삶의 진행과정 속에서 계속되어 온 것으로 단기간의 사건이나 상황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과거 자녀가 성장할 당시의 가족간의 응집력이 현재의 학대발생에 유의미한 예측변인이 되는지를 측정하고자 한다. 가족간의 응집력이 높을수록 학대의 발생율은 낮을 것이고, 반대로 가족간의 응집력이 낮을수록 학대 발생율은 높을 것이다. 더불어 노인을 둘러싼 또 다른 가족환경 변인으로 자녀간 재산 갈등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노인이 가진 경제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자녀간 갈등은 가족관계에 영향을 주고 학대 상황을 조장할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혼, 부부싸움, 부모-자식 간의 갈등에 있어 경제적 문제를 원인으로 지적한다(이효제, 1960; Robinson, 1983 등). 노인이 가진 한정된 경제적 자원에 대한 가족 간 이해의 충돌은 노인과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자식과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발생함으로써 가족 전체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가족 구성원간의 원만한 관계는 노인 부양에 있어 효율적인 책임분담과 가족 내의 강한 규범으로 인해 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 간의 응집력, 자녀들 간의 재산 갈등에 관해 조사함으로써 노인을 둘러싼 가족환경을 알아보고자 했다.

1. 방 법

본 연구는 노인학대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노인의 특성과 가족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가. 조사대상자 및 조사절차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석사 과정에 있는 3명의 연구보조원이 서울시내 노인정과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만난 노인 남성 150명, 노인 여성 150명 총 300명의 노

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노인들의 특성상 설문지의 문항을 읽고 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연구보조원들이 일일이 문항을 읽어주고 응답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기간은 6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65세 이상 85세 이하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나. 조사도구

갈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측정한 척도는 김명언 등(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2000)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갈등에 대한 대처는 원래 자기조절대처, 회피대처, 적극적 해결대처, 사회적 지원추구의 네가지 하위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적극적 해결대처 변인만 사용하여 노인학대와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부모의 도움행동은 Bengtson과 Schrader(1982)의 노부모-성인 자녀의 결속도 척도를 최정혜(1991)가 변안, 수정하여 사용한 것에서 기능적 결속 요인만을 척도로 사용하였다. 기능적 결속에서도 최종적으로 노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재정적 원조 등만을 질문하는 문항만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노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결속이란 두 세대간에 일어나는 객관적, 주관적 유대관계의 정도를 말하며, 특히 기능적 결속은 두 세대간에 일어나는 서비스의 교환과 재정적인 원조 등을 일컫는 개념이다.

다음으로 가족간의 응집력은 노인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족간의 분위기에 관한 것을 질문했다. 구체적으로 가족관계가 얼마나 원만했는가, 가족간에 얼마나 대화가 잘 통했는가 등에 관한 것을 질문하는 척도로 정원식(1989)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노인학대 척도는 전길양, 송현애(1997)의 척도와 김미혜, 이선이(1998)의 척도를 통합,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노인학대척도는 신체적 학대, 심리-언어적 학대, 재정적 학대, 방임의 네 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척도의 신뢰도는 아래 <표 1>과 같다. 갈등에 대한 적극적 대처의 신뢰도가 낮았고, 가족의 응집력에 대한 신뢰도도 .72로 높지 않았으나 자녀에 대한 도움행동과 노인학대 척도의 신뢰도는 각각 .85와 .89로 높았다.

그 외 노인의 건강상태와 자녀간의 재산다툼은 각각 4점 척도인 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노인의 월소득은 소득없음에서 시작하여, 10만원 미

만, 20만원에서 50만원, 60만원에서 100만원, 110만원에서 200만원, 2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표 1> 측정도구의 신뢰도

측정도구	신뢰도(Cronbach's α)
자녀에 대한 도움행동	.85
갈등에 대한 적극적 대처	.66
가족의 응집력	.72
노인학대	.89

2. 결 과

가.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노인들의 연령은 70세에서 79세가 가장 많으며 모두 163명이다. 다음으로 65세에서 69세의 노인들이 111명이었으며, 80세에서 84세의 노인들은 26명이었다. 노인들의 평균연령은 71.63세였다. 다음으로 노인들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졸업이 7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졸이 62명이고 무학이 55명으로 나타났다. 대졸은 25명으로 가장 적었다.

노인들은 월소득이 없는 사람이 18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만원 미만과 60만원에서 100만원이 각각 36명과 35명으로 뒤를 이었다. 200만원 이상인 사람은 7명에 지나지 않았다. 노인들의 60%이상이 월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의 빈곤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추측된다.

노인들의 건강상태는 양호하다는 응답이 135명(4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별로 좋지 않다는 응답이 79명(26.3%), 중간이라는 응답이 72명(24%), 아주 좋지 않다는 응답은 14명(4.7%)으로 가장 적었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의 자녀수는 1명에서 3명이 14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명에서 6명이 141명으로 조사되었다. 7명 이상인 사람도 12명으로 나타났다.

<표 2>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 인	구 분	빈 도	(%)
나 이	65세-69세	111	37.0
	70세-79세	163	54.3
	80세-84세	26	8.7
	합 계	300	100.0
학 력	무 학	55	18.3
	초등학교 졸업	79	26.3
	중학교 졸업	62	20.7
	고등학교 졸업	79	26.3
	대학교 졸업	25	8.3
	합 계	300	100.0
월 소 득	없 음	181	60.3
	10만원 미만	36	12.0
	20만원-50만원	28	9.3
	60만원-100만원	35	11.7
	110만원-200만원	13	4.3
	200만원 이상	7	2.3
	합 계	300	100.0
건강상태	아주 좋지 않음	14	4.7
	별로 좋지 않음	79	26.3
	중 간	72	24.0
	양 호	135	45.0
	합 계	300	100.0
자 녀 수	1-3명	147	49.0
	4-6명	141	47.0
	7명 이상	12	4.0
	합 계	300	100.0
혼인상태	초 혼	184	61.3
	재 혼	30	10.0
	이 혼	4	1.3
	별 거	4	1.3
	사 별	74	24.7
	동 거	4	1.3
	합 계	300	100.0

혼인상태는 초혼이 18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별이 74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재혼이 30명이고 이혼이나 별거, 동거 중인 노인들도 각 4명으로 나타났다.

나. 노인의 학대경험

구체적인 항목별로 학대 경험에 관해 성별로 분석했다. 남성 노인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학대는 심리-언어적 학대에서 ‘자녀가 집안일을 결정하면서 내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결정을 내린다’는 항목이었다. 이것은 여성 노인들의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남성노인 39명, 여성 노인 60명이 그런 적이 있거나, 자주 그렇다. 혹은 항상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가정에서 다른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이 매우 빈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남성 노인들이 학대경험이 있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방임에서 ‘나의 생활환경(난방, 위생, 식사)이 어려워도 자녀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항목으로 남성 노인 37명이 응답했다. 여성 노인들의 경우 두 번째로 자주 경험한 학대는 자녀가 나와 마주쳐도 못 본 척 하거나 말을 하지 않는다는 항목으로 모두 53명의 여성노인들이 그런 적이 있거나, 자주, 항상 그렇다고 응답했다. 남녀 노인들이 모두가 두 번째로 혹은 자주 경험한다고 응답한 학대경험은 나의 생활환경(난방, 위생, 식사)이 어려워도 자녀가 신경 쓰지 않는다는 항목으로 나타나 자녀들의 방임으로 인해 노인들이 겪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체적 학대에서는 전체 노인 중에서 모두 8명이 자녀가 밀거나 때린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7명의 노인들이 자녀가 던진 물건에 맞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재정적인 학대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목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았다는 항목에서 응답 빈도가 가장 높았다.

변인들 간의 평균을 남녀간에 비교하였다. 노인들의 건강상태는 남성과 여성에 있어 차이가 없었지만, 월소득, 갈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나 가족의 응집력, 자녀에 대한 도움행동에 있어 남성 노인들의 평균이 높았다. 그러나 자녀간의 재산다툼, 노인학대에 있어서는 여성 노인들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항목별 노인학대 실태

구 분	성별	그런적 없다	그런적 있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합 계
1. 몸이 아파 자녀에게 도움을 청해도 도와주지 않는다.	남	65(75.6)	18(20.9)	1(1.2)	2(2.3)	86(100.0)
	여	77(70.6)	27(24.8)		5(4.6)	109(100.0)
2.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워도 자녀가 경제적인 원조를 하지 않는다.	남	56(65.1)	21(24.4)	5(5.8)	4(4.7)	86(100.0)
	여	70(64.2)	28(25.7)	3(2.8)	8(7.3)	109(100.0)
3. 나의 생활환경(난방, 위생, 식사)이 어려워도 자녀가 신경을 쓰지 않는다.	남	49(57.0)	25(29.1)	9(10.5)	3(3.5)	86(100.0)
	여	66(60.6)	26(23.9)	10(9.2)	7(6.4)	109(100.0)
4. 자녀가 일정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은 적이 있다.	남	59(68.6)	19(22.1)	7(8.1)	1(1.2)	86(100.0)
	여	84(77.1)	19(17.4)	4(3.7)	2(1.8)	109(100.0)
5. 틀니나 보청기, 돋보기 등 보조기가 필요해도 마련해주지 않는다.	남	56(65.1)	21(24.4)	3(3.5)	6(7.0)	86(100.0)
	여	70(64.2)	28(25.7)	2(1.8)	9(8.3)	109(100.0)
6. 자녀가 집안일을 결정하면서 내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결정을 내린다.	남	47(54.7)	23(26.7)	7(8.1)	9(10.5)	86(100.0)
	여	49(45.0)	34(31.2)	16(14.7)	10(9.2)	109(100.0)
7. 자녀가 나와 마주쳐도 못 본척하거나 말을 하지 않는다.	남	51(59.3)	27(31.4)	7(8.1)	1(1.2)	86(100.0)
	여	56(51.4)	42(38.5)	8(7.3)	3(2.8)	109(100.0)
8. 자녀가 나를 무시하거나 조롱한 적이 있다.	남	63(73.3)	19(22.1)	2(2.3)	2(2.3)	86(100.0)
	여	75(68.8)	26(23.9)	8(7.3)		109(100.0)
9. 자녀가 나에게 고향치거나 욕설을 한 적이 있다.	남	68(79.1)	13(15.1)	4(4.7)	1(1.2)	86(100.0)
	여	84(77.1)	22(20.2)	3(2.8)		109(100.0)
10. 자녀가 노인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한 적이 있다.	남	70(81.4)	15(17.4)	1(1.2)		86(100.0)
	여	87(79.8)	20(18.3)	1(0.9)	1(0.9)	109(100.0)
11. 자녀가 나에게 부담스럽다는 뜻을 비친 적이 있다.	남	51(59.3)	22(25.6)	9(10.5)	4(4.7)	86(100.0)
	여	61(56.0)	35(32.1)	10(9.2)	3(2.8)	109(100.0)
12. 자녀가 던진 물건에 맞은 적이 있다.	남	82(95.3)	2(2.3)	1(1.2)	1(1.2)	86(100.0)
	여	106(97.2)	3(2.8)			109(100.0)
13. 자녀가 나를 밀거나 때린 적이 있다.	남	82(95.3)	3(3.5)	1(1.2)		86(100.0)
	여	105(96.3)	4(3.7)			109(100.0)

구 분	성별	그런적 없다	그런적 있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합 계
14. 자녀가 나를 감금한 적이 있다.	남	84(97.7)	1(1.2)	1(1.2)		86(100.0)
	여	108(99.1)	1(0.9)			109(100.0)
15. 자녀가 나의 부양을 거부한 적이 있다.	남	71(82.6)	11(12.8)	2(2.3)	2(2.3)	86(100.0)
	여	86(78.9)	17(15.6)	3(2.8)	3(2.8)	109(100.0)
16. 자녀가 나의 돈을 허락없이 꺼내어 쓴 적이 있다.	남	74(86.0)	7(8.1)	5(5.8)		86(100.0)
	여	86(78.9)	22(20.2)	1(0.9)		109(100.0)
17. 자녀가 돈이나 보석, 가구와 같은 재산을 달라고 강요한 적이 있다.	남	67(77.9)	9(10.5)	9(10.5)	1(1.2)	86(100.0)
	여	89(81.7)	18(16.5)		2(1.8)	109(100.0)
18. 자녀가 내게 빌린 목돈을 갚지 않은 적이 있다.	남	69(80.2)	9(10.5)	5(5.8)	3(3.5)	86(100.0)
	여	73(67.0)	23(21.1)	7(6.4)	6(5.5)	109(100.0)
19. 허락없이 내 재산을 담보로 해서 자녀가 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	남	80(93.0)	5(5.8)	1(1.2)		86(100.0)
	여	104(95.4)	4(3.7)		1(0.9)	109(100.0)
20. 현금이나 토지 등 나의 재산이 나도 모르게 다른 가족의 이름으로 양도된 적이 있다.	남	83(96.5)	1(1.2)	1(1.2)	1(1.2)	86(100.0)
	여	107(98.2)	2(1.8)			109(100.0)

다. 변인들 간의 평균 및 남녀차이

<표 4> 변인들간의 평균 및 남녀차이

구 분	남자 평균(표준편차)	여자평균(표준편차)
건강상태	3.05(0.93)	3.05(0.96)
월소득	2.10(1.53)	1.79(1.22)
자녀에 대한 도움행동	3.04(1.27)	2.74(1.20)
갈등에 대한 적극대처	3.10(1.00)	2.88(0.90)
가족 응집력	3.83(0.85)	3.68(0.73)
자녀간의 재산다툼	1.37(0.63)	1.39(0.67)
노인학대	1.22(0.30)	1.28(0.27)

라.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표 5> 노인의 학대피해 경험과 타변인간의 상관관계

구분	나이	학력	월 소득	재산 다툼	가족 응집	부모 도움	적극 대처	방임	심리 학대	신체 학대	재정 학대
나이	1										
학력	-.286**	1									
월 소득	-.354**	.422**	1								
재산 다툼	-.122*	.033	.004	1							
가족 응집	-.004	.022	.031	-.180**	1						
부모 도움	-.033	.098	.181**	-.002	.361**	1					
적극 대처	-.030	.132*	.098	-.044	.376**	.439**	1				
방임	.153**	-.130*	-.141*	.072	-.198**	-.126*	-.100	1			
심리 학대	-.076	-.076	-.035	.315**	-.179**	-.004	-.041	.368**	1		
신체 학대	-.104	.004	.041	.206**	-.068	.089	.000	.313**	.479**	1	
재정 학대	-.137*	.026	.110	.453**	-.168**	.051	-.076	.267**	.189**	.263**	1

* $p < .05$, ** $p < .01$

노인의 나이는 방임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의 노인들일수록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생활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자녀들로부터 필요한 의식주를 공급받지 못한 상태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방임은 학력이나 월소득과도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응집이나 자녀에 대한 도움행동과도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간의 응집력이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를 많이 도와줄수록 방임이 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학대는 어떤 사회 인구학적 변인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

이지 않았다. 반면, 자녀들 간의 재산다툼, 가족의 응집력 정도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형제간의 재산다툼이 많을수록, 가족간의 응집력이 낮을수록 심리적 학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학대도 심리적 학대와 마찬가지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대신 재산다툼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인 학대는 노인들의 나이와 부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왔으며, 자녀들 간의 재산다툼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노인의 학대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

<표 6> 노인의 학대경험에 따른 가치관, 부모자녀관계, 가족관계, 삶의 질

구 분	학대 유무	M(SD)	F
건강상태	있다	2.98(.98)	.92
	없다	3.13(.86)	
월소득	있다	1.86(1.32)	.55
	없다	2.02(1.53)	
부모의 도움	있다	2.79(1.21)	.73
	없다	2.99(1.27)	
갈등에 대한 적극적 대처	있다	2.92(.95)	.15
	없다	2.99(.96)	
가족의 응집력	있다	3.56(.77)	16.11***
	없다	4.05(.64)	
자녀의 재산다툼	있다	1.51(.72)	18.67***
	없다	1.04(.21)	

*** $p < .001$

학대경험이 있는 노인들과 없는 노인들 간에 건강상태, 월소득, 자녀에 대한 도움행동, 갈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가족간의 응집력, 자녀들 간의 재산다툼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가족간의 응집력($F(1, 300) = 16.11, p < .001$), 자녀의 재산다툼($F(1, 300) = 18.67, p < .001$)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경험

이 있는 노인들은 학대경험이 없는 노인들에 비해 가족간의 응집력이 낮고, 자녀들 간의 재산다툼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의 건강상태나 월소득, 자녀에 대한 도움행동, 갈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3. 판별분석 결과

노인에 대한 학대를 예측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변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건강상태, 월소득, 자녀에 대한 도움행동, 갈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가족간의 응집력, 자녀들 간의 재산다툼, 총 6개의 변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가족간의 응집력과 자녀간의 재산다툼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표 7> 단계적 판별분석 결과

변인	Wilks' Lambda	자유도 (df1, df2)	F
가족간의 응집력	.937	1	14.865***
자녀간의 재산다툼	.903	2	11.926***

<표 7>에 제시된 람다 값으로 η^2 을 구해보면 첫 번째 투입된 변인인 가족간의 응집력은 사례를 정확하게 분류하는 비율이 0.06%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자녀간의 재산다툼이 포함되었을 때는 약 0.10으로 정확분류비율이 0.04% 가량 증가하였다.

<표 8> 2개의 변인에 의한 분류표

실제집단	예언집단		합 계
	학대경험 있음(%)	학대경험 없음(%)	
학대경험 있음	124(63.6)	71(36.4)	195(100)
학대경험 없음	12(26.1)	34(73.9)	46(100)

판별정확율: 75.3%

이러한 두 개의 변인으로 노인학대 경험이 있는 노인들과 없는 노인들을 정확하게 분류하는 비율은 약 75.3%로 비교적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8>).

I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건강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크게 노인들의 특성과 노인을 둘러싼 가족 환경적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노인의 특성 변인으로 노인의 건강 상태, 노인의 월소득, 노인의 자녀에 대한 도움행동, 노인의 자녀와의 갈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측정하였으며, 노인을 둘러싼 가족 환경적 특성으로 가족간의 응집력, 자녀들 간의 재산다툼을 측정하였다.

노인들의 평균 연령은 약 71세 정도였으며, 노인들의 건강상태는 ‘양호하다’와 ‘중간이다’를 합친 응답이 가장 많아, ‘별로 좋지 않다’거나, ‘아주 좋지 않다’는 응답보다 두 배 정도 높았다. 다음으로 월소득을 보면 ‘소득이 없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고, 다음으로 ‘1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조사 대상자들의 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지만, 자녀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은 높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다.

노인들이 자녀로부터 학대를 당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심리적 학대에 해당하는 ‘집안일을 결정하면서 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자녀들이 ‘노인의 생활환경을 신경 쓰지 않는다’ 방임이 두 번째로 높았다. 자녀가 노인을 밀거나 때리는 행위, 노인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의 신체적 학대에 관해서도 모두 15명이 ‘그런 적이 있다’거나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는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이외에도 노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기, 노인의 부양을 거부하는 등의 학대 행위도 드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00명의 응답자 중 모두 195(65%)명의 노인들이 학대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자녀에 대한 도움행동에서는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자녀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자녀를 위해 집안일을 보살피는 것(살림, 자녀 양육, 집안 보수 등) 이외에 자녀에게 조언을 하거나, 자녀의 고민을 들어주거나, 자녀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등의 행동은 물론 남성들이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남성들이 더 많이 했다는 응답이 가능하다는 것과 두 번째,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단지 자기 지각에 있어서만 자녀에게 도움을 많이 준다고 지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남성들은 ‘살림을 도와준다’는 항목에서만 응답율이 낮을 뿐, 다른 도움행동에서는 실제 자신의 도움보다 자녀를 더 많이 도와준다고 지각하고 그렇게 응답했을 수 있는 것이다. 결과에 보면 자녀에 대한 도움행동 항목에서 자녀를 위해 집안일을 보살폈다는 항목 이외 조언, 고민 들어주기, 금전적인 도움 등의 항목에서는 모두 남성의 평균이 여성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인들 이외에 갈등에 대해 노인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했는가, 가족간의 응집력이 얼마나 높은가, 자녀간의 재산다툼이 얼마나 심각한가 등의 6가지 변인들을 투입하여 어떤 변인이 노인학대를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인지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가족간의 응집력과 자녀간의 재산다툼만이 노인학대를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가지 변인 이외에 노인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들의 월소득과 건강상태, 자녀에 대한 도움행동, 갈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등은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에 관해 노인 자신의 의존성이나 그로 인한 자녀들의 부양 부담을 원인으로 본 연구들이 지배적이지만 노인을 둘러싼 가족환경이라는 측면은 학대 원인의 제공이 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규범의 붕괴, 가족 책임의 약화가 건강한 노인에게 나타나는 학대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일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 오랜 시간 와병중인 노인이 아닌 건강한 노인들의 경우, 자녀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고, 자녀들이 느끼는 부양 부담이 실제 크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에 대한 학대행위가 나타나는 것은 과거로부터 계속되어온 가족관계의 문제이거나, 경제적 자원을 둔 가족간의 갈등이 중요한 원인일 수 있다는 점을 연구결과는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노인에 대한 학대와 장기간 와병 중에 있는 노인들의 학대를 비교했을

때, 그 원인이 질적으로 다를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우리 사회의 대처방식도 다양해야함을 시사한다. 즉 장기간의 와병으로 가족들의 경제적 자원이 고갈되고, 스트레스가 극심한 경우, 사회가 나서서 부양의 책임을 나누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원만하지 못한 가족 관계가 원인이 된 학대, 자녀들 간의 갈등에서 오는 학대의 경우, 가족들 간의 규범 약화가 노인에 대한 방임, 유기, 신체적, 정서적 학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가족 구성원을 상대로 한 상담이나 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명언, 김의철, 박영신(2000). 청소년과 성인간의 세대 차이와 유사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181-204.
- 김미혜, 이선이(1998). 노인학대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일연구. 사회복지, 136, 87-110.
- 이효제(1960). 서울시 가족의 사회학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사회연구원론집 1-1.
- 전길양, 송현애(1997).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 학대와 방임에 대한 인식 및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3), 83-94.
- 최정혜(1991) 노부모가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및 갈등에 관한 연구. 성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동희(1996).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2003). 2003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2). Elder abuse and neglect: In search of solutions. Washingt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etzberger, G. J. (2000). Caregiving: Primary cause of elder abuse? Generations, 24(2), 46-51.

- Bengtson, V. L., & Schrader, S. S.(1982). Parent-child relations. In D. Mangen, & W. A. Peterson(eds.), Research instruments in social gerontology, vol 2: Social role and particip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2.
- Cicirelli, G. (1983). Adult children's attachment and helping behavior to elderly parents: a path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815-825.
- Fulmer, Y., & Anetzberger, G. J. (1995). Knowledge about family violence interventions in the field of elder abuse. Background paper for the Committee on the Assessment of Family Violence Interventions of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and Institute of Medicine, Washington, D. C.
- Hudson, M. F. (1991). Hudson, M. F. (1991). Elder mistreatment: A taxonomy with definitions by Delphi".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3(2), 1-20.
- Robinson, B. E. (1983). Former spouse conflict: During marriage, divorce and postdivorc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Dept. of Family Social Science.
- Wiehe, V. R. (1998). Understanding family violence: Treating and preventing partner, child, sibling and elder abuse. London: Sage.

A Study on Predictors of the Elder Abuse: Focused on The Elderly
Characteristics and Family Environments

Ji-Young Kim*

Kibum Kim**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auses of the elder abuse. We conducted questionnaire survey regarding the elderly and adult sons and daughters at common home. More specifically, we divided the dimension of the elderly abuse causes into the elderly such as health condition, monthly income, helping behavior to sons and daughters, and coping with conflict between them and their sons and daughters and family environments such as family cohesion and property conflict between sons and daughters. A total of 300 the elderly wa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results showed that family cohesion and sons and daughters' property conflict were the most important variables in predicting the elderly abuse. This results implied that the elderly abuse will be likely to cause more family environments and dymacis than the elderly personal characteristics. Accordingly, this results revealed that the harmony and welfare of the Korean family have been neglected recently.

주제어 : 노인학대, 가족환경, 갈등, 응집력, 재산

Keywords : The Elder Abuse, Family Environment, Conflict, Cohesion, Property

*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